

왜 같은 날 일제히 연하장을 보내나요?

매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관제 연하엽서를 구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며, 6자리 번호가 적혀있는 관제 연하엽서는 1월 하순경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누어줌

1. 40억장의 연하장이 팔리는 일본

- 연하장을 보내는 관습은 집단적 행동을 취하면 안심하는 일본인의 습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임
- 일본에서는 매년 형식적인 연하장이 대량으로 발송되며, 11월초에 발매가 시작되는 연하엽서의 경우 무려 약40억장 정도가 판매됨
 - 1949년 복권형식의 연하엽서(お年玉付き年賀はがき)가 발매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건수가 급증했음
 - 1등 당첨상품은 TV 혹은 해외여행 등 여러 상품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당첨확률은 100만분 1정도임
 - 연하엽서 발행 수입은 정부의 복지사업에도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여가 큼
 - 연초에 보내고 받았던 복권형식의 연하엽서 추첨은 매년 1월 하순에 이루어지며 연초에 받았던 연하엽서를 다시 꺼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함
- 일본에서도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로 연하장을 대신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연하엽서 판매량은 줄지 않고 있음

2. 연하장을 보낼 때 주의할 점

- 연하장을 보내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았다면 늦더라도 그 사람에게 연하장을 반드시 보내야 함
 - 특히 사업상의 거래처로부터 연하장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회신용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받은 연하장을 보고나서 회신하는 형태로 연하장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연하엽서 추첨일 전까지 일본 전역에서 연하장이 오고감
- 보통 그해에 가족이 상을 당했다면 연하장은 보내지 않으며 주위 사람에게도 상중이므로 연하장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서신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 다만 모르고 상중인 사람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해서 큰 실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님

3. 연하장 이외 안부엽서

- 연말 인사뿐 아니라 더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부 인사를 엽서로 하는 관습도 있음
 - 높은 습도와 더불어 찾아오는 무더운 일본 여름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름을 잘 나고 있는지에 대한 쇼추미마이(暑中見舞い)라는 엽서를 보냄
 - 이 엽서 역시 번호가 적혀 있고 정해진 날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함